

가부장제 사회와 마음의 상처

글 | 김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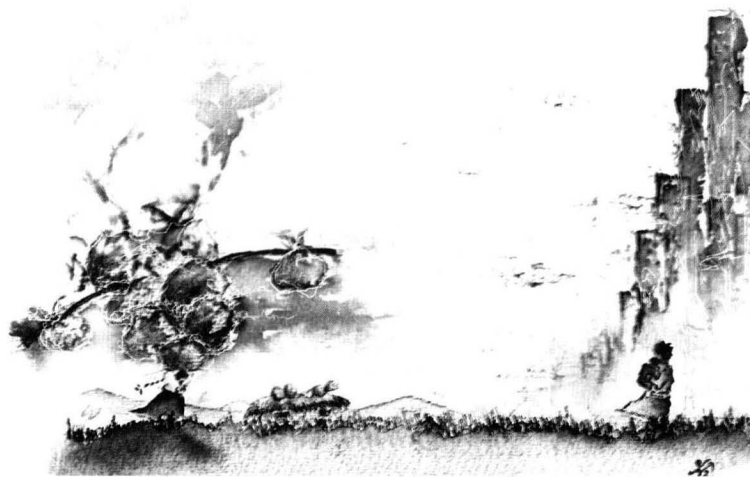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주고받는 정도가 덜 한 사회도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인심 좋게도 서로 많이 주고받는 편에 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이 의구심의 배경에는 '가부장제적 가족의 체계와 이를 원리로 하는 사회의 지배 형태'라는 빛바랜 그림 한 장이 어른거린다.

상처의 근원이 어디 가부장제 한 가지뿐이겠는가. 다만 사회의 밑바탕에 그것이 한 가지 중요한 층위로서 강바닥의 퇴적물처럼 두껍고 광범하게 깔려 있어 삶의 구비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여러 곳에서 잡힌다.

독서치료 모임을 진행해 보면 책을 앞에 놓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온다. 주로 주부들이다. 한두 명이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여자 대부분이 함께 그렇게 할 때도 있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상처가 자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이런 경험을 다른 장소에서 전해보면 듣는 이 가운데 별로 동정적이지 않은 반응도 있다. 일단 시큰둥한 표정이 많다. 이따금 "마음이 아프긴 어디가 아프며 '상처'는 또 무슨 상처냐"고 내뱉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뭐 그리도 대수롭기에 밖으로 드러낼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상처보다는 오히려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으로 보면 어떻겠느냐는 기발한 제안도 내놓는다. '갈등'은 모름지기 공동체에 활력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석까지 붙인다. 이쯤 되고 보면 '치료'를 위한 배려는 아예 물 건너간다. 나의 제한된 개인적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처럼 사람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아픈 마음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며 해결이 단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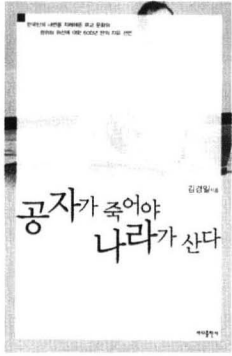


일러스트 | 신항우

하지도 않다. 막무가내로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주부들이 적어내는 소감문을 읽어보면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는 딸만 여덟인 가정의 셋째였다. 아버지는 삼대독자였고 할머니는 유교사상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 끝까지 아들을 원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 여자 아이들은 늘 수치심에 몸을 떨어야 했다. 아들이 되지 못한 열등감이 나를 힘들게 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도 바깥출입을 못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우린 모두 죄인처럼 조용해야 했고 다른 집 아이들과 싸우면 큰 일이 나는 줄만 알았다. (참여자 A의 소감문)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단단한 세월을 나로서는 도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김경일 지음 | 바다출판사 | 328쪽 | 값 8,000원
 《나는 제사가 싫다》이하천 지음 | 이프 | 272쪽 | 값 7,500원

히 파고들 수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에게서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벽을 느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무슨 잘못된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이고, 특히 나를 못살게 했다. “여자가 재수 없어서 되는 일이 없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모든 잘못을 나에게 떠넘겼다.(참여자 B의 소감문)

결혼 6년이란 세월을 내 인생은 남편과 시댁에 착취당하고 멸시받으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노예처럼 살아 왔다(…). 남편은 온갖 언어폭력과 구타를 한 후에는 잠자리를 요구한다. 나는 내 몸에 남편의 손길만 닿아도 소름이 끼치고 몸이 굳어져 버린다. 남편은 항상 일방적이고 내 의사 따위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남편은 “너하고 하면 재미가 없다”며 밖으로 나가 버린다. 정말 더러운 기분, 아니 인간으로서 수치감이 들 정도다.(같은 참여자 B의 소감문)

일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가부장제를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고 ‘이익’을 챙기는 남자도 문제이지만 남자를 등에 업고 남자보다 더 맹렬히 이 제도를 지지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공생관계일까. 위의 참여자 A의 이야기에 나오는 친정 할머니와 참여자 B가 말하는 시어머니가 바로 그 경우이다.

한편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할까. 분명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주부 참여자들의 자기발견과 입장 정리에 도움을 주며 치유의 경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책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좀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새 천년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상처 주는 가부장제 사회를 비판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우선 김경일의 방향에서 크게 들린다. 그의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가 나온 것은

1999년이였다. 지은이의 논조는 사뭇 신랄하다. 지은이는 주자학을 ‘위대한 사기극’이라고 부르고, 유교를 ‘곰팡이’, 공자를 ‘바이러스’라고까지 말한다. 지은이는 주자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결과 토론 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끼리끼리 협잡을 부르는 혈연적 폐쇄성, 여성차별을 낳은 남성 우월의식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교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났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이하천의 《나는 제사가 싫다》(이프)가 나왔다. 2000년이였다. 이 책의 지은이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날카롭게 지적한다. ‘호주제’와 ‘제사’로 대표되는 이 땅의 가부장제도와 뿌리 깊은 성차별의식은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영혼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가시’이며 ‘세균’이라고 규정한다. 지은이는 이 ‘가시’와 ‘세균’이 노리는 생명체는 일차적으로 힘없는 여성이라고 한다. 며느리에 대한 시가의 눈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이익’이고 ‘희생’의 이해관계 속에 있을 뿐이다. 지은이는 묻는다. 여성만 피해자일까? 지은이가 보건대 남자 역시 피해자이다. 조상 대대로 이어진 뿌리 찾기는 남자를 가족의 논리에 함몰케 한다. 그 결과 사회성과 공공성이 오간 데 없어진다. 개인의 자존감에 기초를 두는 영혼의 다원성이 희생되고 만다.

김경일과 이하천에게 우리 사회는 이런 면에서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오래된 쳇바퀴를 돌리며 서로 상처를 준다. 이하천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인다.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는 성찰의 자료로 삼을 만하다.

‘역사는 위대하다고들 말한다. 그 위대성은 무엇이겠는가.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 세대에 힘들게 살아 왔고, 또 그렇게 만든 구조가 있었고 사정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30년간 투쟁해 온 나의 실험을 통해 억압적 가부장제를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다.’(문화일보, 2000. 1. 26.)

● **이 글을 쓴 김정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같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